# 양현종, 황금장갑도 끼나…골든글러브 후보 85명 확정

## KBO, 올해 선정기준 변경해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

## 지난해 45명서 2배 가까이 확대…투수부문 26명 가장 치열

4일 KBO(총재 구본능)가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 85명의 명단을 밝혔다. 작년까지 경기수와 타격 성적으로 골든글러브 후보를 정해왔지만, 올해는 선정 기준을 해당 포지션의 수비 이닝수로 변경(지명타자의 경우 타석수)해 더욱 공정한 방식으로 각 포지션의 후보를 폭넓게 선발하기로 했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 720이닝(팀경기수X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가 된다. 타 포지션의 수비이닝은 합산되지 않는다.

타자는 지명타자 타석을 297타석(규정타석의 3분의 2) 이상 채워야만 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투수는 규정이닝 이상, 10승 이상, 30세이브 이상,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될 경우 후보로 선정된다.

정규시즌 개인 타이틀 수상자는 모든 포지션에서 자동으로 후보에 포함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 시즌 골든글러브 후보는 투수 26명, 포수 6명, 1루수 5명, 2루수 8명, 3루수 6명, 유격수 5명, 외야수 22명, 지명타자 7명 등 총 85명으로 지난해 45명에서 배 가까이 확대됐다. 각 팀의 주전선수들이 거의 모두 후보가 된 셈이다.

투수 부문 후보는 KIA 양현종, 팻딘, 헥터, 두산 더스틴 니퍼트, 유희관, 장원준, 롯데 브룩스 레일리, 박세웅, 손승락, 송승준, NC 김진성, 제프 맨쉽, 에릭 해커, SK 스캇 다이아몬드, 문승원, 박종훈, 메릴 켈리, LG 헨리 소사, 진해수, 차우찬, 넥센 제이크 브리검, 최원태, 한화 알렉시 오간도, 삼성 윤성환, kt 돈 로치, 라이언 피어밴드까지 총 26명으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포수 부문은 KIA 김민식, 두산 양의지, NC 김태군, LG 유강남, 삼성 강민호, 이지영 등 6명이 후보에 올랐다.

1루수 후보는 두산 오재일, 롯데 이대호, NC 재비어 스크럭스, 한화 윌린 로사리오, 삼성 다린 러프 등 6명이며, 2루수는 KIA 안치홍, 두산 오재원, 롯데 앤디 번즈, NC 박민우, SK 김성현, 넥센 서건창, 한화 정근우, kt 박경수 등 8명, 3루수는 KIA 이범호, 두산 허경민, SK 최정, 넥센 김민성, 한화 송광민, 삼성 이원석 등 6명이 각 부문 후보에 올랐다. 유격수는 KIA 김선빈, NC 손시헌, LG 오지환, 넥센 김하성, 한화 하주석 등 5명이다.

3명의 선수에게 돌아가는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은 KIA 로저 버나디나, 이명기, 최형우, 두산 김재환, 박건우, 롯데 김문호, 민병헌, 손아섭, 전준우, NC 권희동, 김성욱, 나성범, SK 노수광, LG 이형종, 채은성, 넥센 고종욱, 이정후, 한화 양성우, 삼성 구자욱, 김헌곤, 박해민, kt 유한준 등 22명의 쟁쟁한 후보가 선정됐다.

지명타자는 KIA 나지완, 두산 닉 에반스, 롯데 최준석, SK 정의윤, LG 박용택, 한화 김태균, 삼성 이승엽까지 7명이 경쟁한다.

전체 후보 중 양현종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과 함께 한 시즌에 한국시리즈 MVP, 정규시즌 MVP, 골든글러브까지 동시에 석권하는 KBO 리그 최초의 선수에 도전한다.

이승엽은 2015년 자신이 세운 골든글러브 최고령 수상(39세3개월 20일)과 통산 최다 수상(10회)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하며 마지막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의지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고 니퍼트와 서건창, 최정, 최형우, 김재환, 김태균 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한편 강민호와 민병헌은 각각 롯데에서 삼성, 두산에서 롯데로 팀을 옮겨 골든글러브 수상에 도전한다. 시즌 종료 후 이적한 선수 중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경우는 9명이었으며, FA 이적 후 수상한 선수는 지난해 최형우까지 7명이다.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4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영광의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13일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열린다. KBS 2TV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이 생중계한다.

# 김용대, 13년 간격 데자뷔…2004 · 2017 FA컵 MVP

## 울산 현대, 1983년 팀 창단 이후 34년만에 우승

3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하나은행 FA컵 시상식에서 MVP에 선정된 울산 김용대가 조병득 축구협회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FA컵의 한을 풀었다. 1983년 팀 창단 이후 34년 만에 우승했다.

울산은 3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KEB 하나은행 FA컵 결승 2차전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0-0 무승부를 거뒀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둔 울산은 1, 2차전 합계 2-1을 기록하며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1998년 결승전 패배 이후 19년 만에 오른 결승이기도 했다. 당시 울산은 안양LG(현 FC서울)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1차전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둔 울산은 이날 부산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값진 열매를 따냈다.K리그 클래식에서 수원 삼성에 밀리며 정규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친 울산으로서는 내년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이 걸려 있는 FA컵 우승마저 놓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울산의 창단 첫 FA컵 우승 뒤에는 수문장 김용대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그야말로 '우승 청부사'다. 이미 국내 모든 대회에서 우승해봤다. 우리 나이로 서른 아홉의 베테랑 골키퍼는 울산에 창단 첫 FA컵 우승을 안겼다.

이날 김용대는 부산 공격수들의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자칫 부산으로 넘어갈 뻔한 흐름을 차단했다.

잊지 못할 우승일 수 밖에 없다. 김용대는 지난해 세대교체를 선언한 FC서울을 떠나 울산에 새둥지를 틀었다.당시 울산은 일본 J리그로 떠난 김승규를 대체할 경험이 많은 골키퍼가 필요했고 김용대에 러브콜을 보냈다. 울산은 김용대의 경험을 믿었다. 그리고 김용대는 울산의 기대에 부응했다. 32강전부터 숱한 선방으로 팀을 결승전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결승 상대는 부산이었다. 김용대에게 부산은 잊을 수 없는 팀이기도 하다.

13년 전 부산 소속이던 김용대는 FA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선방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최우수선수(MVP)까지 차지했다. 13년이 흐른 2017년 김용대는 울산 소속으로 FA컵 결승전에서 부산을 맞이했다. 비록 결승 1차전에서 1실점을 했지만 최후방에서 수비수들을 조율하며 적지에서 2-1 승리를 챙겼다.

결승 2차전에서도 김용대의 선방은 빛났다. 전반 초반부터 파상공세를 펼친 부산의 결정적인 슈팅을 모두 막아내며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러한 활약으로 김용대는 두번째 FA컵 MVP를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김용대는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면 칭찬보다 질타를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 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고 늘 채찍질을 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을 떠날 당시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6년간 머물렀던 서울을 떠날 때 나름 커리어의 위기였는데, 울산에서 좋게 봐줘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기회가 FA컵 우승이라는 기쁨이 됐다"고 전했다.

부산을 상대로 우승한 속내도 밝혔다. "부산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팀 내 어린 선수로서 FA컵 우승과 MVP를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은 팀 내 최고 연장자로서 같은 결과를 냈다. 축구라는 게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선지 감회가 새롭다."

## 홍명보 전무 "우리에게 쉬운 조는 없어"

사령탑이 아닌 행정가로 내년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모든 역량을 발휘해 신태용호를 돕겠다고 공언했다.

홍 전무는 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홍명보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남은 6개월 동안 (신태용 감독이) 상대 분석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시절 '영원한 리베로'로 통하던 홍 전무는 선수, 코치, 감독으로 월드컵을 경험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브라질에서의 실패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홍 전무는 이를 십분 활용해 신태용호 지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협회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월드컵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브라질 대회 때도 지원이 부족하진 않았다. 당시 실패를 경험 삼아 러시아에서는 정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뉴시스

# '4강 신화 주역' 유상철,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

## 3년간 이끈 노상래 감독 사퇴 의사 밝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감독이 K리그로 돌아온다. 행선지는 전남 드래곤즈다.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 감독은 4일 오후 광양을 찾아 전남과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유 감독과 전남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독은 현역 시절 만능 플레이어로 명성을 떨쳤다.

1998년 프랑스 대회, 2002년 한일대회 등 두 차례 월드컵을 포함해 A매치를 124회나 경험했다. 이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일월드컵이다. 당시 유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대다수 시간을 그라운드 위에서 보냈다.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호쾌한 중거리 슛으로 쐐기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2006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말까지 대전 시티즌을 통해 프로팀 사령탑도 경험했다. 2014년부터는 울산대에서 후배들을 양성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을 이끌었던 노상래 감독은 전날 구단을 찾아 최종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 감독은 구단을 통해 "올 시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나를 믿고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경기까지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팬들에게 미안하다. 선수들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취임 첫 해인 2015년 9위를 차지한 노 감독은 2016년 5위로 전남을 상위스플릿에 진출시켰다. 재임기간 동안 김영욱, 이슬찬, 한찬희, 허용준 등 유스 출신들의 프로 정착을 도운 것 역시 성과로 꼽힌다.

뉴시스

# '빙속여제' 이상화, 고다이라에 또 밀려 500m 은메달

##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대회…차민규도 행운의 銀

'빙속 여제' 이상화(28 · 스포츠토토 · 사진 가장 오른쪽)가 4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에서 36초86을 기록,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금메달을 딴 고다이라 나오(31 · 일본 · 사진 가운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빙속 여제' 이상화(28 · 스포츠토토)가 고다이라 나오(31 · 일본)와의 맞대결에서 또다시 밀렸다.

이상화는 4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에서 36초86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500m 3연패를 노리는 이상화의 숙적 고다이라가 36초5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2017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13연속 금메달이다.

이날 이상화의 기록은 나쁘지 않았다. 이상화는 2013년 11월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3~2014 ISU 월드컵 1차 대회 2차 레이스에서 작성한 당시 세계기록이자 캘거리 올림픽 오벌 트랙 레코드(36초74)에 0.12초 떨어지는 기록을 냈다.

하지만 같은 조에서 레이스를 펼친 고다이라가 더 앞섰다. 고다이라는 이상화가 가지고 있던 트랙 레코드를 0.21초나 앞당겼다. 전날 1000m에서 넘어져 최하위에 그쳤던 고다이라는 평창올림픽 금메달 후보의 면모를 한껏 뽐냈다.

다만 고다이라는 이상화가 2013년 11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3~2014 월드컵 2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작성한 현재 세계기록(36초36)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마지막 조에서 고다이라와 함께 레이스를 펼친 이상화는 첫 100m 구간을 10초35로 통과했다.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하지만 이상화는 마지막 400m에서 속도를 올려 26초51로 주파, 2위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첫 100m 구간을 10초19로 통과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한 고다이라는 마지막 400m도 26초34의 기록으로 통과하며 순위표 가장 윗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차민규(24 · 동두천시청)는 남자 500m 디비전A에서 34초31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개인 최고 기록(34초81)을 0.5초나 앞당긴 차민규는 캐나다의 알렉스 부아베르 라크루아(34초31)에 불과 0.001초 차로 뒤졌다. 포토 피니시까지 확인한 결과 라크루아는 34초313, 차민규는 34초314를 기록했다.